

2024 AUTUMN + WINTER



국가보훈부



보훈교육연구원

어린이 Vol.08 나라와랑

나라사랑 히어로! | 청년 독립운동가, 송몽규

사(史)적인 여행 | 민주 의식의 촛불이 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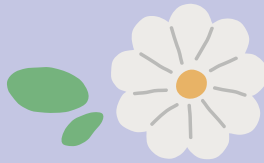
숨겨진 이야기 | 벽을 두드려서 소식을 전한 타벽통보법

물건 속 기억 | 기록으로 먼 이국의 독립을 돕다



부록 | 나라사랑 스티커

Contents



어린이 나라사랑 구독 방법

어린이 나라사랑은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 무료로 구독할 수 있어요!
웹진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QR코드를 통해 구독 신청해주세요!



종이잡지 QR



웹진 QR

종이잡지 신청 방법

종이잡지 QR을 통해 네이버 폼 접속
▶ 내용 작성 ▶ 제출 클릭 ▶ 신청완료!

웹진 신청 방법

QR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 정기구독 클릭
▶ 내용 작성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완료!

나라사랑 만나기

04 어린이 나라사랑 사용설명서

06 보훈 키워드

바로 알고 나라사랑하기

08 만화 나라사랑 히어로!

청년 독립운동가, 송몽규

12 사(史)적인 여행

민주 의식의 촛불이 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여행

16 기자단 취재일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이
소개하는 보훈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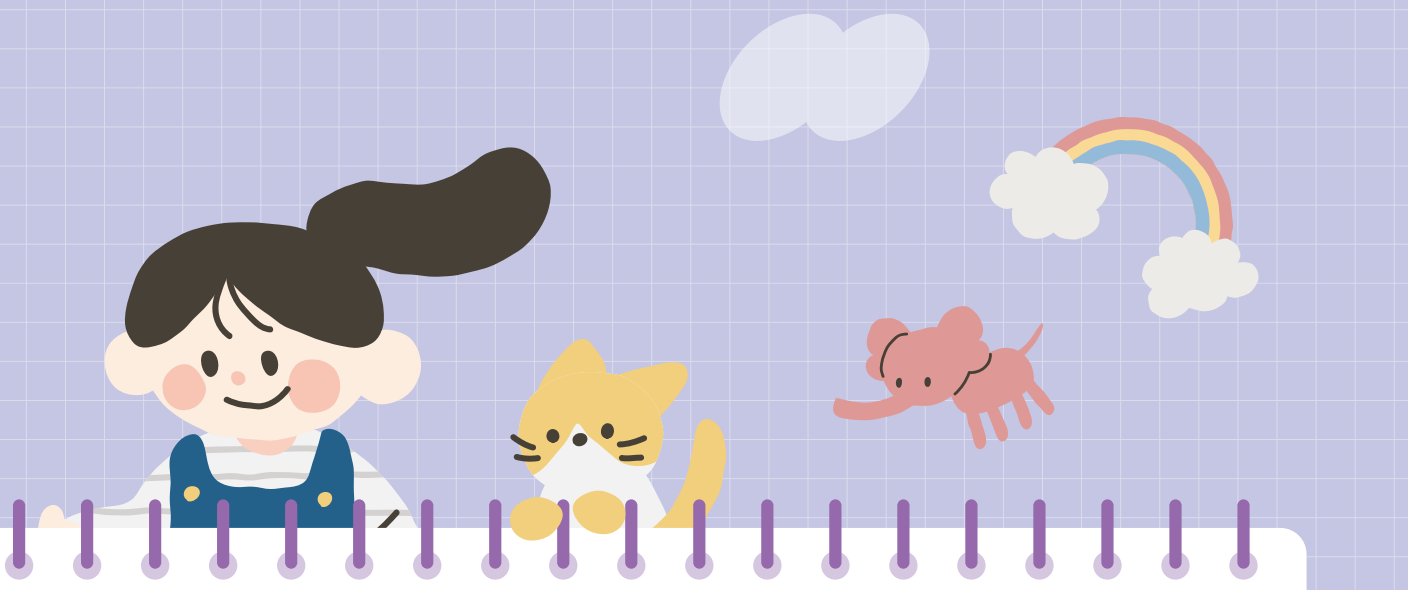
18 나라사랑 Playlist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한 멜로디

20 음식으로 맛보는 보훈

오래 끓여 따뜻함을 채웠던
피난민의 음식, 돼지국밥





나라사랑 배우기

- 22** To. 나라사랑
용감한 역사 속 솔직한 기록,
학도병의 편지
- 26** 숨겨진 이야기
벽을 두드려서 소식을 전한 타벽통보법
- 28** **만화** Let's Go! 나라사랑!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선 학생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 32** 어제와 오늘
덕수궁이 지닌 그날의 역사
- 34** 물건 속 기억
기록으로 먼 미국의 독립을 돕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나라사랑 꿈꾸기

- 36** **만화** 교실 속 민주주의
우리 반 법 만들기
- 40** 나라사랑뉴스
가족들과 함께 나의 권리를 위한 투표 체험!
- 44** 출동 기자단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가보았습니다
- 48** 나라사랑 인증하기
#이벤트 #인스타그램 인증샷
- 49** 신나는 나라사랑!

2024 AUTUMN + WINTER

어린이 나라사랑 Vol.08

통권 8호 | 발행일 2024년 11월 4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제작/기획 보훈교육연구원(031-250-8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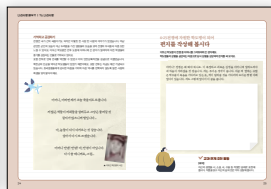
어린이 나라사랑 잡지는 학교와 가정에서
보훈의 역사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과의 교과연계를 활용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나라사랑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어린이 나라사랑은 보훈과 역사를 다채롭게 전달하는 책이에요. 어린이 나라사랑에 실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나라사랑 마음을 길러봐요

초등학교 교과 연계로 과목 간 융합학습까지 가능해요. 학년별 교과 연계 추천 활동을 함께 실었어요. 교과 연계 추천 활동을 하면서 교과서 기반의 학습을 하도록 해요.



[실과] 20, 21쪽



[국어] 24,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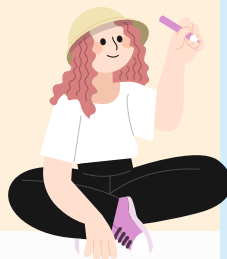


[사회] 34, 35쪽

만화로 만나는 나라사랑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숨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요.

만화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라사랑 히어로!

8쪽

청년 독립운동가, 송몽규

Let's Go! 나라사랑!

28쪽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선 학생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교실 속 민주주의

36쪽

우리 반 법 만들기

영상으로 보는 나라사랑

사(史)적인 여행 12쪽

전북특별자치도로 떠나는
보훈 여행을 영상으로 만나요.



출동 기자단 44쪽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의
생생한 취재 현장을 만나요.



증강현실(AR) 주사위 게임

온·오프라인으로 어린이 나라사랑을
즐길 수 있어요. 나라사랑 AR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린이
나라사랑 종이잡지와 연동이 가능한
주사위 게임이 나타나요. 게임을 통해
보훈 지식을 쌓아봐요.



보훈 키워드

#상이

#전몰

#전상

#공상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를 마주치곤 합니다.
단어를 바로 알고 의미를 명확히 파악했을 때 더욱 사실에
가깝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소한 차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역사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므로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우는 것, 나라사랑의 시작이겠죠?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발음을 알아볼까요?

상이 [상이] 부상을 당함

전몰 [전:몰]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

전상 [전:상]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

공상 [공상]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처

*공무: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



알쏭달쏭~ 차이점을 살펴봐요!

‘**상**이’는 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입은 부상을 의미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상이 등급이 나뉘기도 합니다.

‘**전**몰’은 전투나 군사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상이나 병으로 인해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전**상’은 무장을 한 채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반란을 일으킨 집단을 진압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다 입은 상이를 의미합니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마음에 깊게 새기며, 한 글자 한 글자씩 따라 써 보세요!

상이: 부상을 당함

전몰: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

전상: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

공상: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처



✓ 교과 연계 추천 활동

[국어 3학년 1학기 5단원] 낱말의 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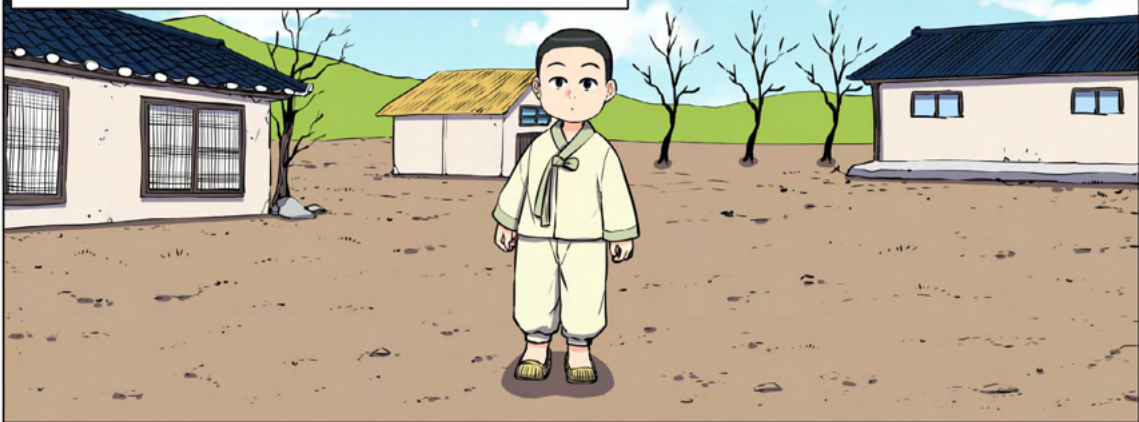
낱말의 짜임에 대해 알고 낱말의 짜임을 파악하며 글 읽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하기



청년 독립운동가,
송몽규



송몽규 선생은 1917년 9월 28일 중국 용정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촌 형제인 윤동주 시인과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서로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기독교 민족학교로 널리 알려진 명동학교와 은진중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 의식의 촛불이 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여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는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때 빠르게 들불이 타올랐던 지역이에요. 4·19혁명 때는 전북대 학생들이 전국 대학생 최초 시위를 가졌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주 신흥고 학생들 또한 역사를 써 내려갔지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조명하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떠나는 보훈 여행,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1

전주 신흥고

압박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은 학생들

1980년 전주 신흥고 학생들은 광주의 소식*을 듣고 함께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광주는 외부와 통신이 끊겨 있었지만, 신흥고 학생들은 종교 채널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전주의 여러 고등학교가 동시에 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나 시위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27일 학교 위로는 군 헬리콥터가 떠 있었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말렸어요. 무장한 계엄군이 학교 밖에 진을 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운동장을 돌며 민주수호 구호를 외쳤습니다.

두려움에 맞섰던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정의를 지킬 수 있었던 거지요.

*광주의 소식

5월 18일~27일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과 학생들을 연행·구타하고,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99



전주시청 노송광장

모두가 모여 집회를 벌였던 곳

광장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지역의 공동체가 모일 수 있어 그 자체로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지금의 전주시청 노송광장은 옛 전주역 광장이 있었던 자리로, 1980년 민주화의 열기가 점점 퍼져나가던 때 전북의 대학생 2만여 명이 모여 연합 집회를 벌였던 장소예요. 현재는 민주 열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표지석*을 세워 두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여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민주 열사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아요.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2

3

전동성당

민주 의식을 이어갔던 공간

1970년대 이후 전주의 전동성당은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되었어요. 1987년 6월 당시 전동성당은 전북 지역에서 시위 행렬의 마지막 거점*이 되기도 했어요. 시민들은 전동성당에 모여 민주 의식을 키우기 위한 시민강좌도 열었습니다. 강연과 집회를 이어가던 전동성당은 1988년 10월 10일 돌연 화재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절망하지 않고 성당을 더욱 굳건하게 보수하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민주화운동의 기념적인 공간으로 기억되며, 1981년에는 국가문화재 사적 288호에 지정되었습니다.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상징**: 추상적인 생각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표지석**: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거나 어떤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세우는 돌

***성지**: 신성시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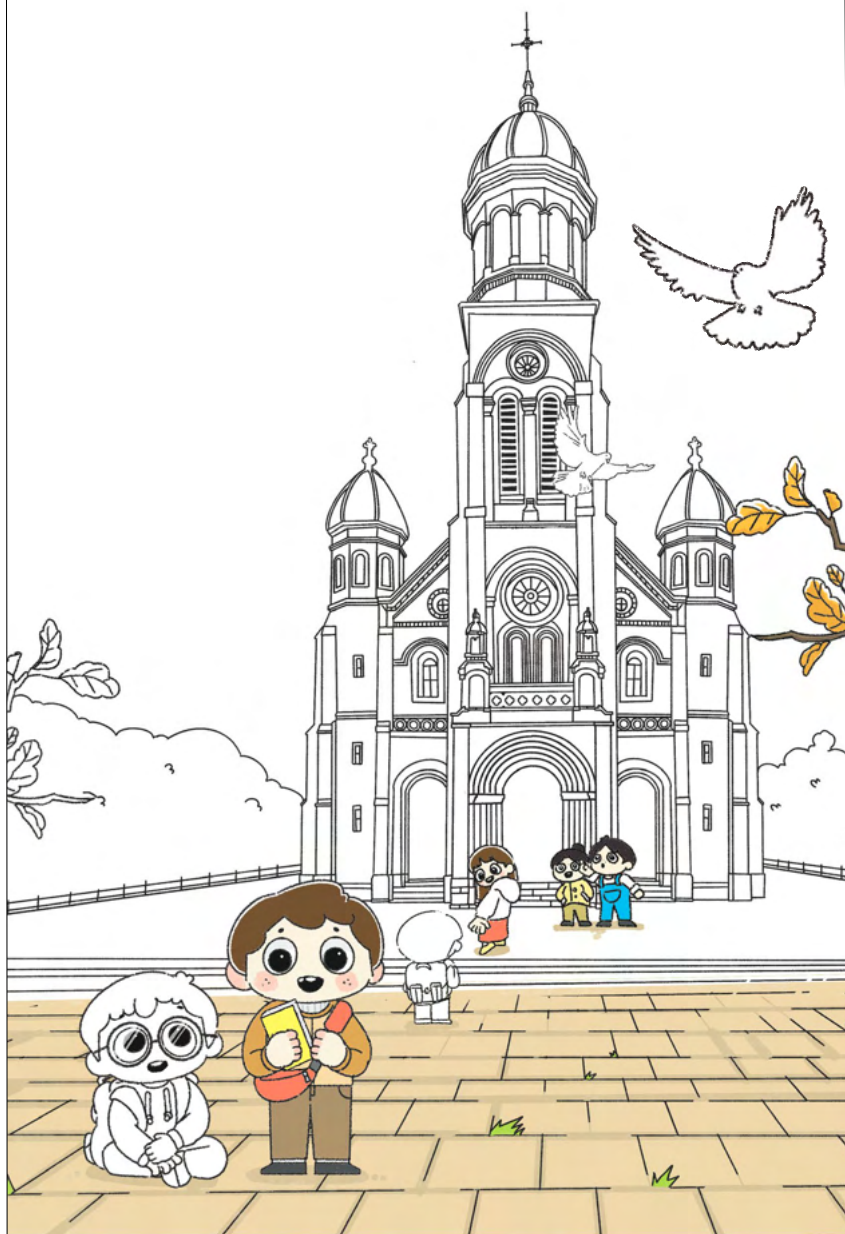
***거점**: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

***전화위복**: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나라사랑 컬러링!

생생한 전북특별자치도
보훈 여행지가
등장했어요!
다양한 색으로 색칠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보아요.



Tip.
완성한 그림은 인스타그램에
#어린이나라사랑 컬러링
이벤트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자단 취재일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이 소개하는 보훈 시설

남양주시 현충시설 3곳을 탐방했어요

송우현 기자 천마초5



먼저 탐방한 곳은 해병대 북한강지구 전첩비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현 전적비 일대에서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해 치른 전투에서 대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국군은 서울 외곽 방어선을 확보했고

북한의 재침공 기도를 분쇄하였으며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탐방 장소는 호국6·25참전유공자상 및 탑입니다. 남양주시 일패동에 6·25전쟁에서 산화한 남양주시 출신 전몰군경과 참전유공자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2006년 12월 15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남양주시 현충탑은 6·25전쟁 당시 조국과 자유 수호를 위하여 장렬히 전사한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981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백범김구기념관을 다녀와서

최준희 기자 만안초4

입구에서 마주한 김구 선생님의 동상은 그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침략을 당해본 경험으로 인해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길이라는 김구 선생님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념관 근처에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삼의사의 묘소가 실제로 있지만,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묘가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백범김구기념관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김구 선생님의 굳건한 의지와 애국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는 중요한 현충시설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방어선 전투 백골부대 전적비

박태성 기자 여의도초6

한강 방어선 전투는 6·25전쟁 초기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국군 3개 사단이 한강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전선을 사수한 부대가 바로 '백골부대'입니다. 제18보병연대(백골부대)가 치열하게 방어한 7일이라는 기간 덕분에 국군은 장비와 병력을 재편성하고,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이 확

보되어 반격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백골부대 용사들을 기억하고자 2003년 10월 1일, 서울 양화동 인공 폭포공원에 기념비를 세웠지만, 현재 여의도로 이전하였습니다. 한강 방어선 전투 백골부대 전적비에 다녀오면서 한국전쟁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와서...

권하윤 기자 한솔초6

만세운동을 하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 끌려갔던 곳이 바로 서대문형무소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실제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다릅니다. 고문으로 얼굴에 멍이 들고 붓고 총혈되어 실제 모습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 달랐던 것입니다. 고문으로 얼굴이 부어 숨도 잘 쉬지 못했



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수감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방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정말 좁았는데 그곳에 아주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을 받았던 것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프고 슬픈 역사를 더 이상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다녀와서

김서현 기자 옥길산들초4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이 남진을 계속하여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유엔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한을 돕기로 했고, 미국을 포함하여 16개 나라가 참전하였습니다.

그때 맥아더 장군은 인천에 상륙하자고 하였고,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군산으로, 미 해군은 평택에 상륙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천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위험이 컸지만, 결국은 인천에 상륙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이후 13일만인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6·25전쟁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지어졌습니다.



노래와 뮤지컬로 만나는 나라사랑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한 멜로디



희망을 노래하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 싸웠던 독립군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사기*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독립군가'라고 해요. 1907년 우리나라 군대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을 때 의병들이 우리나라의 민요인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가락에 맞춰 불렀던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해가 갈수록 다양한 내용과 곡으로 활발히 창작됐으며, 1910년부터 1920년 사이에는 가장 많은 수의 독립군가가 만들어지고 불렀다고 해요.



독립군들의 진취적 기상이 담긴 노래

많은 독립군가 중에서도 '압록강 행진곡'은 현재까지도 중요한 행사에 사용되며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들과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있어요. 압록강 행진곡의 멜로디를 만든 한형석 작곡가(1910~1996)는 실제 독립군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이기도 하죠. 이범석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광복군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1940년에 한국광복군 제5지대에 이어 제2지대에서 활동하며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절망에 빠진 조국과 동포를 구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1940년대 광복군의 대표적인 노래로 평가받고 있어요.



따라 부르며 되새기는 독립군의 강인한 금지*

시대가 변했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압록강 행진곡을 부르며 금지를 되새기고 있어요. 2005년에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독립군가를 발라드, 락,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편곡해서 부르는 '광복 60년 독립군가 다시 부르기-다시 부르는 노래' 프로젝트 앨범이 나오기도 했어요. 압록강 행진곡은 가수 서문탁이 애절한 목소리로 가창했어요. 2016년도에는 밴드 크라잉넛이 광복군 정진대 요원들의 한국 착륙을 기념하는 야외콘서트를 열어 락 버전의 압록강 행진곡을 불렀답니다. 또한 압록강 행진곡을 비롯한 독립군가를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도 있는데요. 클래식 뮤지컬 '독립군가'는 우리나라의 독립군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 웃음과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압록강 행진곡은 물론이며 '용진가', '독립군가' 등 대표적인 독립군가들을 다루고 있으며, 전쟁 속에서도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그 마음을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압록강 행진곡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쳐물리자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후렴)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향에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꽃 포기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 교과 연계 추천 활동

1. 친구들과 같이 <압록강 행진곡>을 불러 봅시다.
2. 반복되는 후렴 가사를 변형해 노랫말을 지어봅시다.
3. 역할을 맡아 뮤지컬을 연기해 봅시다.

*사가: 의욕이 충만한 기세

*해산: 집단, 조직, 단체가 해체하여 없어짐

*결의: 굳게 뜻을 정한 마음

*금지: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도탄: 몹시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름



오래 끓여 따뜻함을 채웠던 피난민의 음식, 돼지국밥

누구나 사랑하는 대중음식*

돼지국밥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식 중 하나로, 돼지 뼈를 우려낸 국물에 돼지고기와 내장류를 넣어 밥을 말아 먹는 음식이에요. 깊고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돼지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한 그릇에 풍부한 맛을 담고 있어요. 기호*에 따라 새우젓, 다진 양념을 넣어 먹기도 하고,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위로가 되며, 깊은 맛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돼지국밥이 6·25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돼지국밥에 담긴 이야기를 한 번 알아보아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한 그릇

고기 뼈를 오랫동안 끓여서 먹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요리법이에요. 옛날에는 큰 가마솥에 푹 끓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갈비탕과 소고기국밥이 있어요. 특히 돼지 뼈로 만든 돼지국밥은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돼지국밥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6·25전쟁 때였어요. 당시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부산은 가장 많은 피난민이 몰려 인구가 급증했어요. 피난민들은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고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돼지 뼈와 내장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었어요. 함경도에서 온 피난민들은 고향에서 먹던 가릿국*을 훔내내었고, 그게 돼지국밥의 시작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돼지국밥은 부산과 주변 지역에서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저렴하고 영양이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돼지국밥을 발전시켜 왔어요. 부산은 여전히 돼지국밥으로 사랑받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을 꼭 먹어보려고 한답니다.

과거의 따뜻함이 녹아 있다



돼지국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통적인 음식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친숙하고 정겨움을 주어요.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던 시간과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서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음식이기도 해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할 때, 또는 편안한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메뉴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국밥에는 남모를 슬픔과 따뜻함이 녹아 있습니다.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통해 역사를 알아가고 몸과 맘을 데우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대중음식:** 많은 사람이 널리 즐겨 먹는 음식

***기호:** 즐기고 좋아함

***피난:** 피하여 멀리 옮겨 감

***생계:** 살림을 살어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가릿국:** 밥 위에 삶은 고기, 선지, 육회, 두부를 얹어 다대기에 비벼 먹는 함경도 지방의 장국밥



교과 연계 추천 활동

[실과]

식재료 생산과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식재료의 고유하고 다양한 맛을 경험하여 자신의 식사에 적용한다.

[사회]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맥락,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용감한 역사 속 솔직한 기록 학도병의 편지

학도병이란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의용병*을 뜻하는데요, 6·25전쟁에도 어린 나이에 스스로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이 있었어요. 그중 이우근 학도병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는 1950년 포항전투에서 큰 역할을 해준 71명의 학도병 중 한 명입니다. 전투 후에 이우근 학도병의 주머니에서 편지가 발견되었는데요. 편지는 당시 어린 학생이 전쟁을 통해 느낀 감정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결심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군대가 38선을 넘어와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3일 만에 서울을 잃게 되었어요. 북한군의 공격이 매우 강력했고, 병력*과 장비의 차이도 컸어요. 특히 병력 차이가 약 2배나 나서 전황*은 빠르게 불리해졌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책과 펜을 들고 공부하던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자원했어요. 학생들은 철모와 군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모와 교복을 입은 채 전장에 나섰습니다.

방어선을 지킨 71명의 학도병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대구까지 공격할 기세였어요. 국군과 미국 군대는 낙동강 주변에 방어선을 만들고 북한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싸웠어요. 동해안에서도 계속 북한군과의 전투가 이어졌어요. 북한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상황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부족했어요. 북한군은 낙동강 인근 방어선 동부를 계속 공격했고, 국군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어요. 포항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였어요. 포항이 밀리면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군을 막아야 했어요. 8월 10일, 후방 지휘부는 71명의 학도병들에게 포항여자중학교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국군들에게 총기 사용법을 배우고 총을 받았어요.

다음날 새벽, 북한군이 포항여중 인근까지 도달했어요. 대기하던 학도병들은 체계적*인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2개 소대로 나뉘어 북한군에 맞서 싸우기로 했어요. 전투는 1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4차례의 전투를 치렀어요. 탄약이 바닥나자 학도병들은 몸을 던지면서까지 북한군을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71명의 학도병 중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이 실종되었으며 13명이 북한군에 붙잡혔어요. 하지만 용감히 싸운 학도병들 덕분에 북한군의 포항 진입을 막을 수 있었어요. 사령부와 포항 시민들 역시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영웅들의 모습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훈련을 받은 강한 모습의 군인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이우근 학도병은 책과 펜을 들고 공부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전쟁은 평범한 학생들도 총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설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입대를 결심할 때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슬픔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을 테지만, 결국 나라를 위해 입대를 결심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용기와 결정이었습니다. 이우근 학도병을 비롯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고귀한 정신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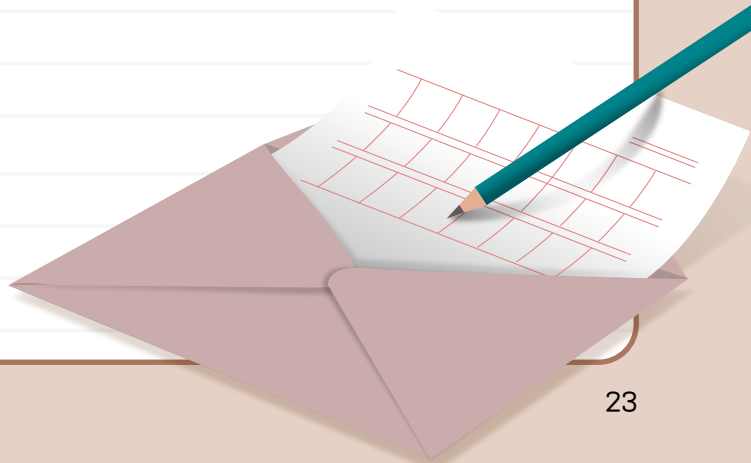
이우근 학도병이 전장에 나갔을 당시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그는 포항여자중학교에서 북한군을 막아내다가 전사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는 어머니께 전해지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어요. 편지에는 전쟁을 겪으며 느낀 슬픔과 무서움,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겪은 두려움과 솔직한 마음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포화 속으로'에도 등장해요. 이 영화는 포항 전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학도병들의 용감한 모습을 담아냈어요. 이우근 학도병의 이야기처럼,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의용병:** 국가나 사회의 위급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조직된 군대의 병사

***병력:** 군대의 인원 또는 그 숫자

***전황:** 전쟁의 실제 상황

***체계적:**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



기억하고 공감하기

전쟁은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냥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 아닌 두려움을 가진 영웅들의 모습을 보며 전쟁의 무서움과 아픔 또한 느낄 수 있어요. 이우근 학도병은 전투 도중에 어머니께 쓴 편지가 알려지며 어린 학생들의 용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어요.

포항 전투로 인해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고 이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북한군의 진군을 막아낸 학도병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항 전투는 지금도 매년 기념되고 있습니다. 호국영웅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아,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 이우근 학도병의 사진

6·25전쟁에 자원한 학도병이 되어 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이우근 학도병이 전쟁 중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예요.

학도병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당시 상황을 상상하며 편지를 써 보아요.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많
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디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디어 이 글을 씁니다.



교과 연계 추천 활동

[국어]

자신의 경험을 시, 소설, 극, 수필 등 적절한 갈래로 표현해
봅시다.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성찰해 봅시다.

벽을 두드려서 소식을 전한 타벽통보법

어린이나라사랑 7호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한 비밀 암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한글의 글자를 숫자에 대입해 만든 '암호부', 김우전 선생이 만든 'W-K(우전킴)', 그리고 벽을 두드려 암호를 전달하는 '타벽통보법'이 있었는데요. 감옥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타벽통보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타벽통보법’은 무엇인가요?



타벽은 '벽을 치다', 통보는 '알리다'는 뜻으로 타벽통보법은 벽을 쳐서 정보를 알리는 암호예요. 1929년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 김정련 선생이 수감자들에게 알려주며 퍼졌다고 하는데요. 자음과 모음에 따라 벽을 두드리는 횟수를 다르게 하여 비밀리에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독립운동가는 왜 이 암호를 사용했나요?



당시 일제의 감시가 심했기에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힘썼어요. 그러다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도 많았습니다. 감옥에서는 수감자 간 대화를 금지했기 때문에 다른 운동가와 쉽게 소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말이 아닌 몸짓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타벽통보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통 방법을 생각해 낸 거죠.

‘타벽통보법’을 사용한 일화를 소개해 주세요.



1957년 출간된 잡지 '새벽'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해 줄게요. 김정련 선생의 옆 방에 안창호 선생이 수감되었을 때인데요. 김정련 선생이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려 안창호 선생에게 타벽통보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용한 수감소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벽을 두드리는 건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한 행동이지요.

조심스레 벽을 두드리던 중, 간수*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김정련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수감소에 있던 오물통을 뒤집어쓰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의도를 갖고 벽을 두드린 것을 숨기기 위해 정신 이상자를 흉내낸 거죠. 김정련 선생은 그대로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안창호 선생은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두 독립운동가의 애뜻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간수: 교도관의 전 용어, 일제강점기 때 죄수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2옥사에 가면
타벽통보법 전시를 볼 수 있어요!

당시 안창호 선생과 김정련 선생이 타벽통보법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 있어요. 타벽통보법에 관심이 생겼다면 한번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몸짓으로 만드는 나만의 비밀 암호

말이나 글이 아닌 우리 몸을 사용하여 암호를 만들 수 있어요.
자음과 모음으로 규칙을 정하고 신호를 생각해 볼까요?
차근차근 차례를 따라 비밀 암호를 만들며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1단계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을
암호로 쓸지 생각해 보기

좌측 그림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2단계

글자(자음, 모음, 숫자)에
맞는 신호 만들기

단백통보법 자음모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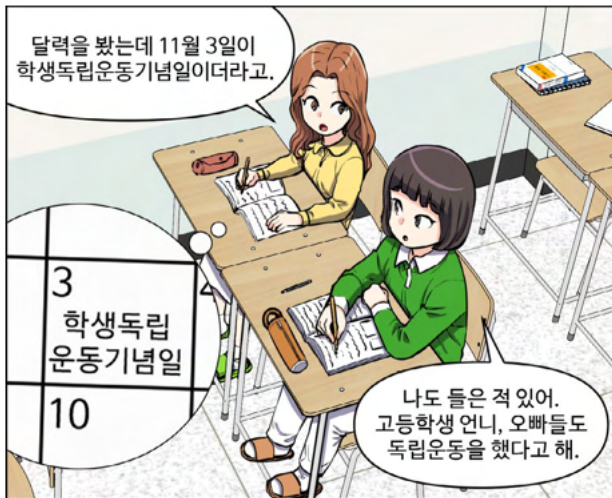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딱	딱딱	딱딱딱	딱딱딱딱	딱x5회	딱x6회	딱x7회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딱x8회	딱x9회	딱x10회	딱x11회	딱x12회	딱x13회	딱x14회
ㅊ	ㅌ	ㅍ	ㅎ	ㅊ	ㅌ	ㅍ
똑	똑똑	똑똑똑	똑똑똑똑	똑x5회	똑x6회	똑x7회
ㅊ	ㅌ	ㅍ	ㅎ	ㅊ	ㅌ	ㅍ
똑x8회	똑x9회	똑x10회	똑x11회	똑x12회	똑x13회	똑x14회

3단계

직접 만든 비밀 암호로
친구와 소통해 보기

활동 소감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선 학생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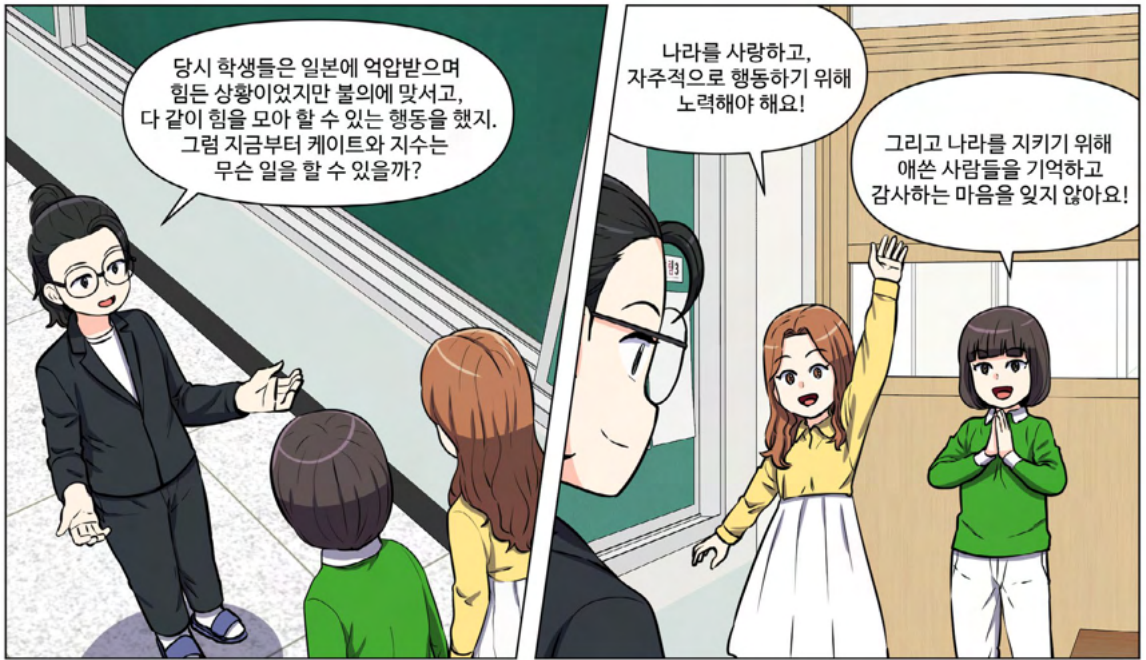


*고등보통학교: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중등교육기관



*절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을을 돌우고 기운을 내서 힘차게 일어남





케이트가 알려주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 Can you tell us about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Memorial Day?

On this day, we commemorate the patriotism and spirit of the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 How should we spend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Memorial Day?

1. We should commemorate and carry on their spirit for fighting against injustice and for a brand new future.
2. As we explore and move through our own life, we must also look at what we can do for our nation and community.
3. We should remember and give thanks to those who sacrificed everything in the effort of protecting our nation.

independence 독립
commemorate 기념하다
patriotism 애국심
spirit 정신
injustice 불평등
sacrificed 희생



덕수궁이 지닌 그날의 역사

높은 빌딩들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덕수궁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현재를 살아가는 덕수궁의 자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임진왜란을 극복한 곳, 광해군과 인조가 왕위에 오른 곳, 왕들의 어진*이 보관되어 있는 역사적 의미가 이어져 온 덕수궁은, 조선시대의 궁궐로서 원래 경운궁(후에 덕수궁)이라 불렸습니다.

1897년 2월, 을미사변* 이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고종은 그 해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황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면서 궁의 칭호*도 덕수궁으로 바뀌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세상을 떠나자 일본은 덕수궁에 있는 여러 전각을 헐어버리거나 모습과 용도를 바꾸며 궁궐의 형태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파괴되고 고통받은 덕수궁은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서울에 있던 북한군 병력은 한 곳으로 집결되는데, 그곳이 바로 덕수궁이었습니다.

북한군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당시 전쟁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은 UN군의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포병부대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에게 덕수궁 폭파를 명령합니다.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는 상부의 지시와 한 국가의 사적 보존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역사를 담은 덕수궁을 사라지게 할 수 없었던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는 상관을 설득해 작전을 바꾸게 합니다.

미군은 북한군이 덕수궁을 벗어날 때까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고 기다린 후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이날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가 덕수궁에 포격을 명령했다면 우리는 지금의 덕수궁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6·25전쟁 이후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며 역사적인 변화를 겪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복원이 이루어져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아름다운 덕수궁의 모습이 탄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정이 어떻게 소중한 유산을 지켰는지를 되새기며 덕수궁을 그려보아요.

*어진: 왕의 얼굴을 그린 그림

*을미사변: 1895년 10월 일본군이 경복궁에 들어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

*칭호: 어떠한 뜻으로 일컫는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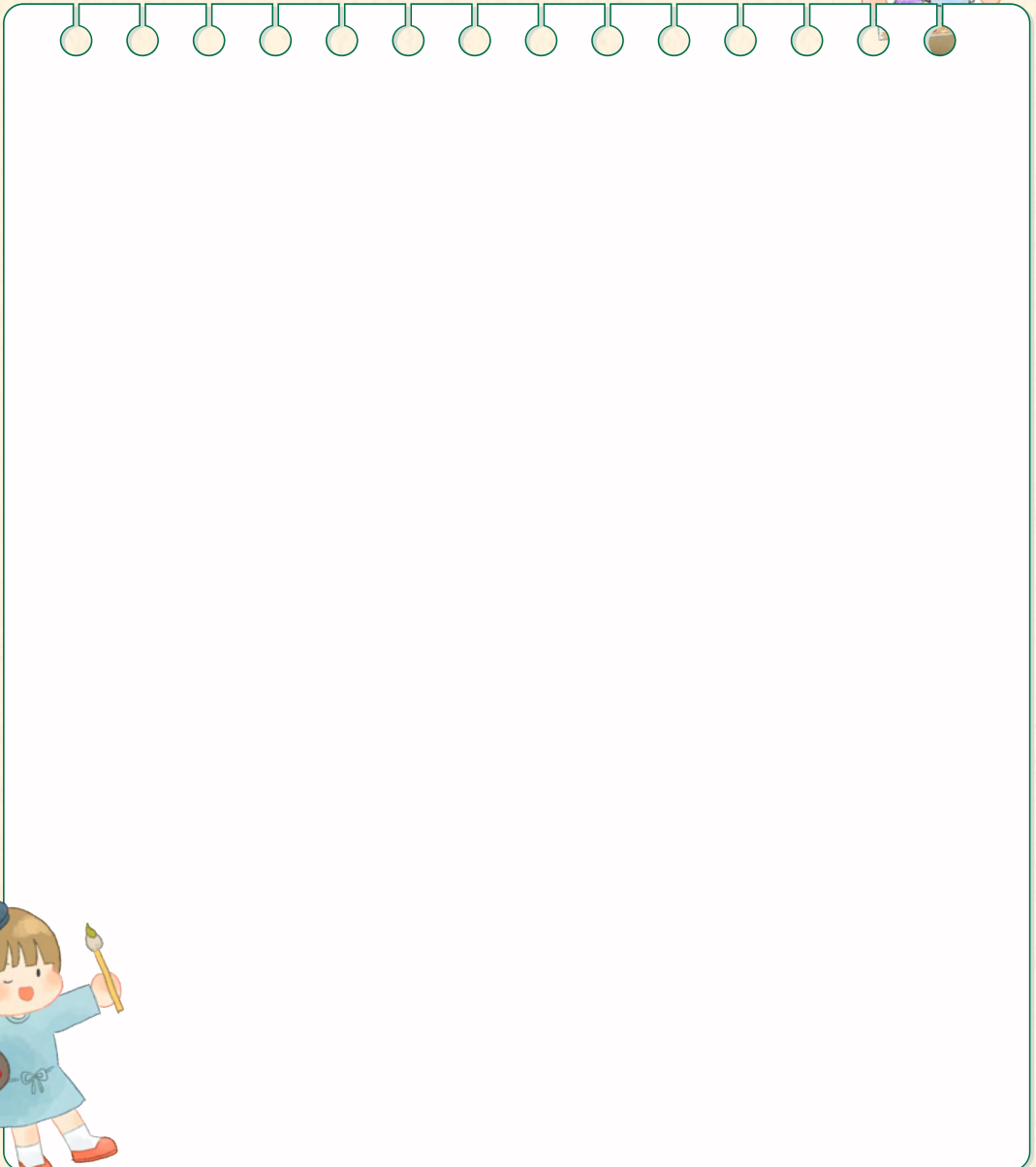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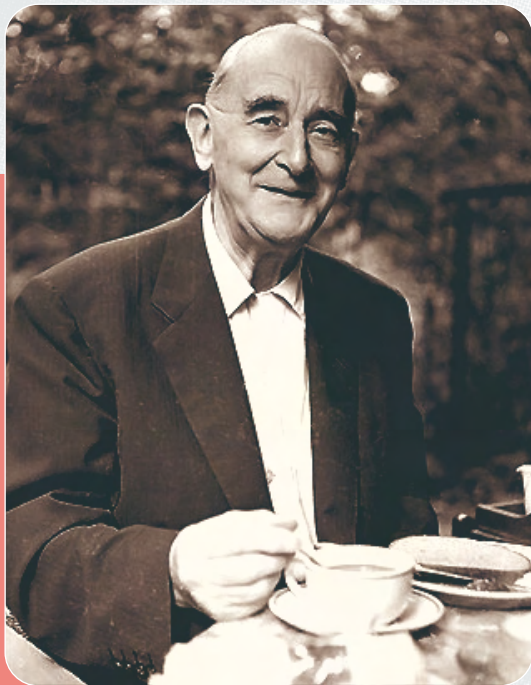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덕수궁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문화재와 시적을 지켜준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기록으로 먼 이국의 독립을 돕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
그럼으로써 일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광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과 같은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기록의 힘을 보여준
이가 있는데요.

먼 이국*에서 와 한국의 역사적 모습을 기록하여
독립운동을 도왔던 캐나다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를 소개합니다.

3·1운동을 담은 유일한 기록

스코필드 박사(1889~1970)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
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립운동가였던 이갑성이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와 3월 1일에 독립선언식과 만세 시위가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며 협력을 요청했어요. 스코필드 박사
는 이에 흔쾌히 응하며 독립선언문을 영어로 번역하
여 미국에 보내는 것은 물론, 외국의 신문과 잡지를
찾아보고 이갑성에게 국제 정세*를 알려주었어요.
3·1운동 당시에도 사진기를 들고 현장을 다니며 독
립을 외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
고 자신이 눈으로 본 장면을 타자기로 써 내려갔지
요. 타자기로 남긴 기록만 원고지 298장에 달했습니
다. 2016년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사업
회에서 실제로 스코필드 박사가 작성했던 원본 자료
가 공개됐어요. 자료에는 만세운동 당시 시위 행렬
의 모습, 고문당하는 한국인을 치료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어요.

일제의 탄압을 기록해 세계에 알리다

3·1운동 이후에도 스코필드 박사는 독립운동을 돕는 한편 일제의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록을 멈추지 않았어요. 1919년 4월에 일어난 제암리와 수춘리 학살 사건 당시에도 스코필드 박사는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제암리의 대학살(The Massacre of Chai-Amm-Ni)」과 「수춘 만행*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제암리 사건을 담은 보고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에, 수춘리 사건을 담은 보고서는 미국의 장로회 기관지에 보도되었어요. 이외에도 일본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강연과 언론 기고를 통해 일제의 탄압과 한국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타자기는 이러한 스코필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는 한국인들을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언론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국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일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후대에 전달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타자기는 오늘날의 키보드처럼 손으로 하는 문서 작성을 대신해 준 도구였어요. 스코필드기념관에 가면 그가 활동했던 당시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타자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에 앞장선 스코필드 박사를 기념하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 *이국: 문화나 풍속 등이 다른 나라
- *항거: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항함
- *광명: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
- *정세: 일이 되어가는 형편
- *만행: 야만스러운 행위



📍스코필드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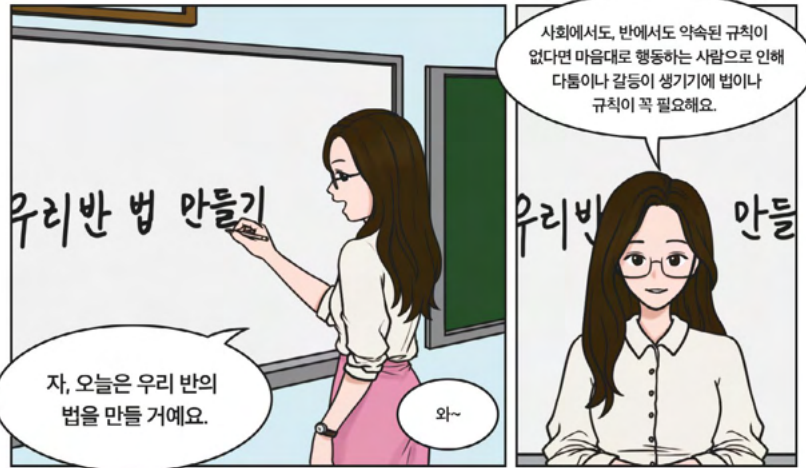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5-40

✔ 교과 연계 추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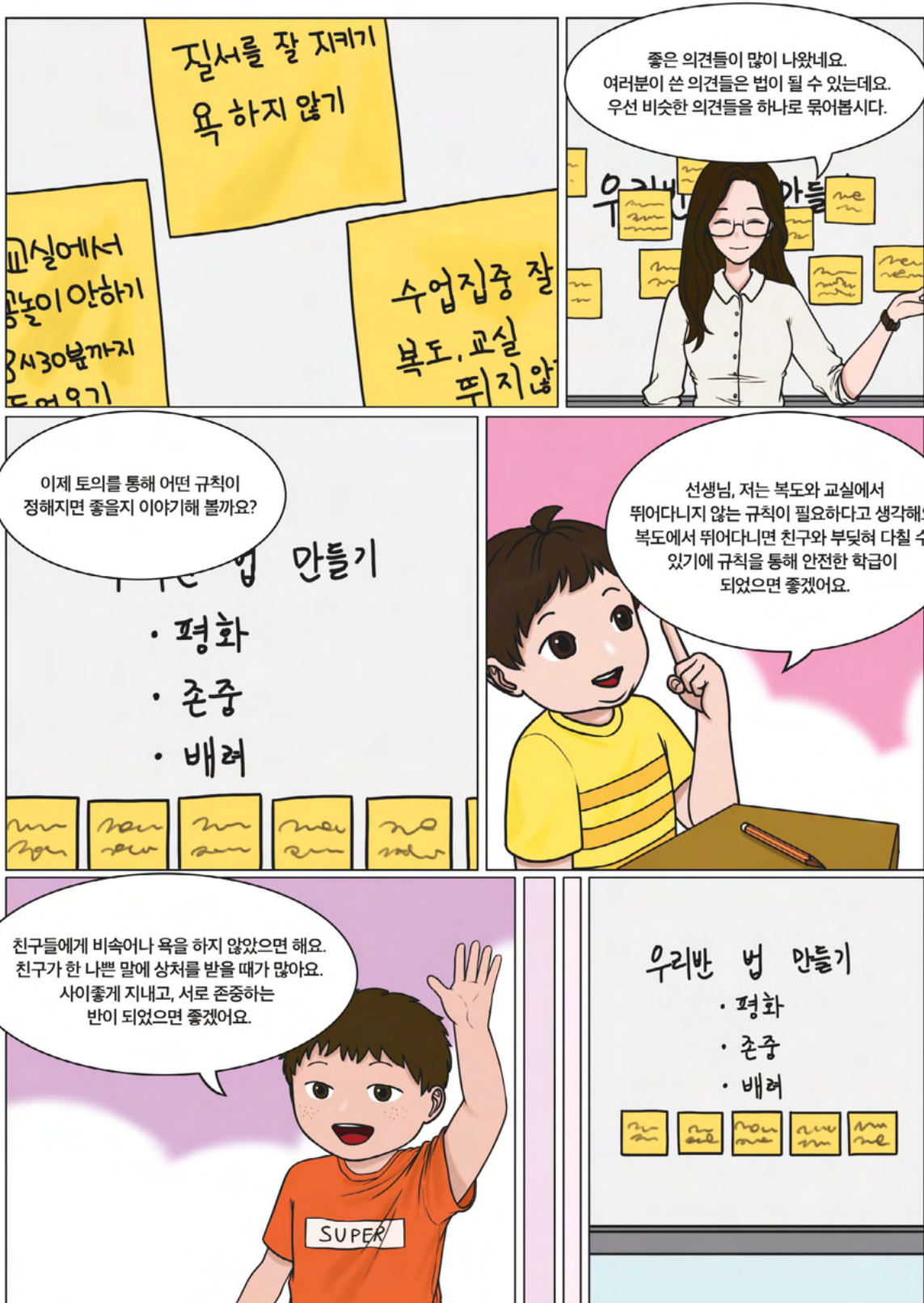
[사회 6학년 1학기 3단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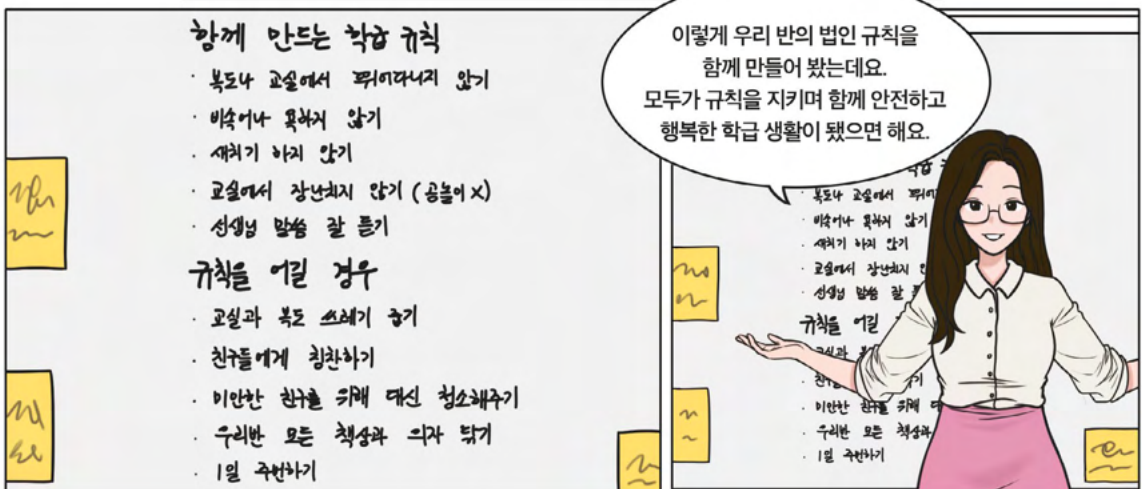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을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우리반 법 만들기









제4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이 전하는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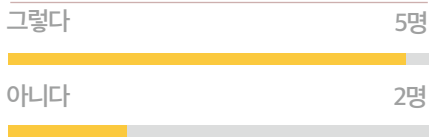
가족들과 함께 나의 권리를 위한 투표 체험!



투표를 통해 내 방을 갖다

정아인 성남은행초5

이사가면 방을 주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천해 볼까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우리 생활 곳곳에 알게 모르게 숨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뽑는 반장, 부반장도 우리는 투표로 결정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방법이죠. 그 외에도 저녁 메뉴 정하기, 집안일 당번 정하기 등 사소한 곳에도 민주주의가 녹아 있습니다.

무슨 주제로 토론할지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려보았습니다.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7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사 가면 각자 방을 주어야 한다'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조부모님, 부모님께 각자의 방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인 동생과 같은 방을 사용하면 개인의 영역이 지켜지지 않고 공부도 방해받을 것 같다.

동생 친구들도 모두 방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가지고 싶다.

외조모님과 부모님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외조모님
부모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고 엄마, 아빠도 같은 방을 쓰니 너희들도 같은 방을 쓰고 4명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조부모님
외조부님

방에 여유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각 방을 주는 것이 맞다.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저는 한 번 더 외조모님께 방이 생기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다고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다시 투표를 진행하였고 외조모님이 의견을 바꿔 찬성이 5명, 반대가 2명으로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제 편이 된 것 같아서 든든하고, 또 반대의 의견들 또한 무조건 싫다가 아닌 각자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니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외식 메뉴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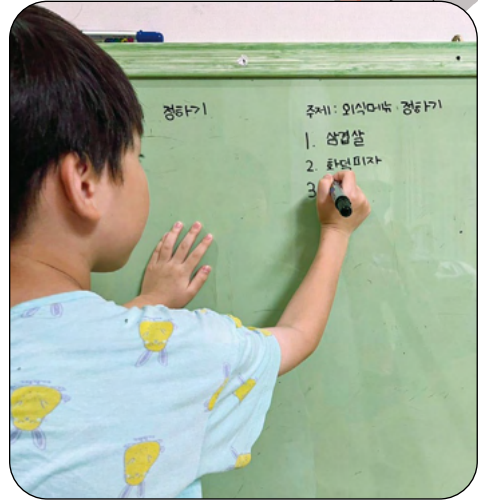
김도윤 새미래초4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중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여러 사람의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의견이 최종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어떤 게임을 할지 정할 때, 가장 많은 친구가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면,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내고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민주주의 실천의 주제로 '외식 메뉴 정하기'로 정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우선 각자 원하는 외식 메뉴를 2가지씩 제안하고 왜 그 메뉴를 제안하는지 의견을 설명하였고, 외식 메뉴 후보 중에서 각자 원하는 메뉴 2가지를 비밀 투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표를 받은 삼겹살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민주주의 실천에 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외식 장소를 정한 덕분에 모두가 만족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우리 가족의 외식 메뉴 결정에도 적용되니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가족회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이은성 송화초4

우리집 안에서 투표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마사지 비용 조정 건이 가족회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저 이렇게 3인 가족이라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외갓집 가족들도 참여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는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엄마 메신저에서의 투표기능을 활용했습니다.

투표안건: 마사지 비용 조정 건

내용

엄마 어깨 마사지를 10분에 3,000원씩 받고 있는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인하하기를 원함

현행유지 3,000원에 10분



인하한다 2,000원에 10분



마사지 비용 조정 건

현행유지 3,000원 / 10분 4명

인하한다 2,000원 / 10분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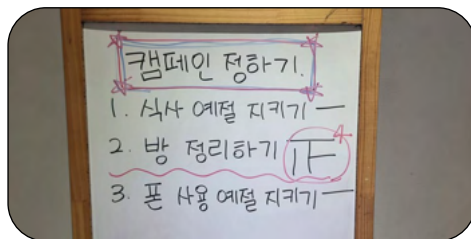
투표결과는 현행유지 4표, 인하한다 3표로, 현재 그대로 10분당 3,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참여 못하는 저까지 포함하여 투표 인원은 총 7명인데 어른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제 의견이 합쳐지면서 4표로 현행유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와서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 기타의견이 나왔다고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현행유지를 하되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무료, 먼저 금액인하를 하고 추후에 다시 올려준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엄마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지금처럼 비용은 그대로 지급하되 엄마가 마사지해 달라고 할 때 귀찮다고 미루지 않고 꼭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팽팽한 의견이 생긴다면 투표로 정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원만한 대화로 조절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이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엄마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정당하지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족회의와 투표가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한 민주주의

이채은 수명초6

저는 아직은 어려서 국가를 위한 투표는 할 수 없지만,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3학년부터 학급 임원선거, 4학년부터는 전교 임원을 뽑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급이나 친구들과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손을 들어 결정하기도 합니다. 비밀투표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민주적인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하여 투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 중 한 가지를 캠페인으로 정해서 가족 모두가 지키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6명이 모여 안건을 내고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세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식사 예절 지키기. 두 번째는 방 정리하기. 세 번째는 폰 사용 예절 지키기. 이렇게 다양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 동생 이렇게 6명이 투표한 결과입니다. 총 4표를 얻은 2번 방 정리하기가 당첨되었습니다. 평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방 정리에 대한 부분이 불편하셨다고 하시면서 결과에 만족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9월의 캠페인이 정해졌는데요, 가족들이 스스로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통해 정한 만큼 모두가 성실히 잘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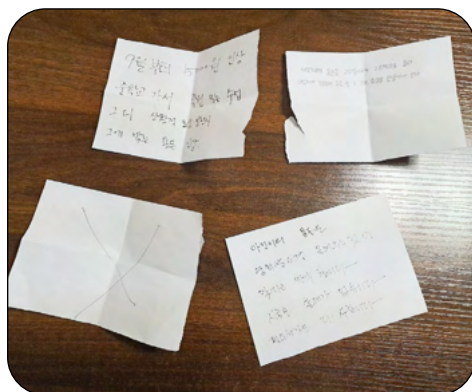
최아인 승학초6

민주주의의 의미만 보면 좀 멀게 느껴지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민주주의를 한번 체험하고자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아인이의 용돈을 3만 원으로 올려야 하는가?'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받는데 항상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풍문고에서 책을 3권 샀는데 할인을 받았는데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3만 원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주제를 제 용돈에 관련해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 가족 구성원인 아빠, 엄마, 여동생, 저 이렇게 네 명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여 듣고 존중하며 올바른 민주적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쪽지로 비밀 투표를 하였더니 엄마와 제가 찬성표, 아빠와 여동생이 반대표를 내어 투표 결과가 반반이 되었습니다. 아빠께서는 중학생 되면 용돈을 쓸 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올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엄마께

서는 9월부터 용돈을 3만 원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저는 용돈을 3만 원으로 올리므로써 걱정 없이 소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2표를 얻은 관계로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모아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제 용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 말대로 저는 돈을 쓰는 상황이 거의 없기에 만 원이 아니라 오천 원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족회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더 잘 알게 되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출동 기자단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가보았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만났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국군이 낙동강까지 물린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의 작전 지시부터 계획 수립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굳건한 자세로 서 있는 자유 수호의 탑과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 차량 전시물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간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의 취재 내용을 통해 알아가 보아요.



더 많은 인터뷰 내용은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취재 현장,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칠봉초5
김다슬 기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가다

2024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1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방문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이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기습적으로 공격한 작전으로,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지형적으로 험난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해안을 선택하여 기습 상륙을 통해 서울을 탈환하고, 남한과 유엔군이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전쟁의 흐름을 뒤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 곳곳에 인천 상륙 작전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유엔 참전 용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 해안에 상륙한 로페즈 중사는 부하들을 이끌고 전진하던 중, 북한군의 총에 중상을 입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던질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유엔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수류탄을 받아내어 홀로 전사하셨던 모습이 정말 엄청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유엔참전용사들과 국군장병들,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애쓴 학도병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월초6
성지유 기자

한국 전쟁에 큰 도움을 준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인천의 직할시 승격과 개항 100주년을 기하여 1984년에 개관되었는데 해발고도 150m의 송도 청룡산 중턱에 화강암으로 축조되었습니다. 기념관 내에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각종 역사적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옥외시설로는 건물 중앙 상단에 18m 높이의 기념탑과 참전 16개국의 국기 게양대·옥외전시장이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한반도에서 진행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는 75,000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된 것에 더불어 나아가 인천이 수복된 후 유엔군이 13일에 걸쳐 서울로 진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작전과 관련된 양동작전이 있습니다. 먼저 삼척 동해에서 미군함 미주리호로 상륙 작전 준비인 것처럼 오인시키기 위한 공습이 있었고, 군산시에서 상륙 작전과 비슷한 수준의 포격을 수차례 실시하는 등의 기만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인천에서 9월 15일 상륙 지점인 인천을 고립시키기 위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쟁 중, 흥남부두후퇴작전에서 사용된 메리디스 빅토리호 화물들 대신 피난민을 태우고 5명의 아이 까지 태어났습니다. 결국 사람을 가장 많이 태운 배가 되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60개국이 전쟁을 도왔고, 3년 2개월 2일 동안의 수많은 병사, 학도병, 국민들의 용기와 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땅에 사는 것입니다.



천마초5
송우현 기자

우리가 배워야 할 인천상륙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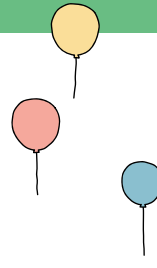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나라를 지킨 날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1984년 건립된 곳입니다.

인천상륙작전에는 다양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때 북한에 발각되면서 인천상륙작전의 정보를 알고 있는 홍시우, 임병래 두 명은 고문으로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장사상륙작전을 먼저 실시 하였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단 92명만이 상륙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로 우리 군에게도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우리에게 불리한 지형은 적 또한 의심하기 어려울 테니 적을 치기 좋은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9월 15일 새벽 6시 30분에 인천 월미도 앞에 집결하였고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 만조 이후 공습을 펼쳤습니다.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국군의 날이 우리나라가 삼팔선을 넘어서 북쪽까지 공격한 것을 기념하는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는 7만 5천여 명이 동원되었고 유엔군의 도움이 있었으며 여러 번의 작전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인천상륙작전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만안초4
최준희 기자

인천상륙작전 취재기

어린이 나라사랑 기자단 활동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취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된 곳입니다.

해설사님의 설명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전반적인 내용과 기념관의 주요 특징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위기에 처했을 때, 맥아더 장군이 일본 도쿄에서 인천으로 급히 이동해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이 작전은 북한군의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세를 뒤바꾼 결정적 사건으로, 작전명은 ‘크로마이트’였습니다.

해병대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해병대의 용맹한 전투 정신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과 용기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그날의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공간이자,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장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재와 AR로 알아보는

보훈기념일

12월 오픈 예정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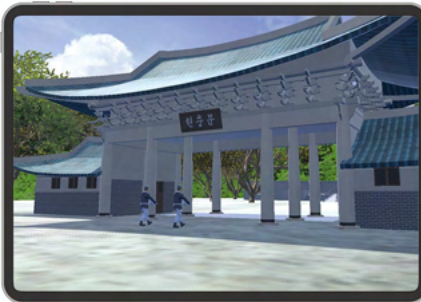
PC와 모바일을 통해 알아보는 보훈기념일 연계 실감형 디지털 교재



+ 교사용 지침서 포함



AR 6.25전쟁의 유엔참전국 ▲



AR 호국영웅의 귀환 ▲

PC나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디지털 교재로 보훈기념일을 배우고
AR콘텐츠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나라사랑 인증하기

현충시설이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이에요. 우리나라 곳곳에는 많은 현충 시설이 있습니다.

현충시설에 방문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현충시설에 방문한 친구들의 사진과 소감을 살펴볼까요?



'인증하기' 코너는...

<어린이 나라사랑>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져요. 현충시설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간단한 소감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태그 #어린이나라사랑 #어린이나라사랑 이벤트도 꼭 달아주세요!

김도윤 새미레초4



권영주 중위는 1980년 2월 9일 야간 전차 기동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조종수의 진로 판단 실수로 교랑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는데, 포수와 탄약수를 필사적으로 구조하였지만, 권영주 중위 자신은 화염에 빠져 질식사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네 명의 군인을 구한 용기와 정신은 진정한 나라를 생각하는 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주중위동상 #용기있는모습

조찬영 청덕초4



용인시 현충탑은 6·25전쟁 기간에 산화한 488위의 용인 출신 호국전몰용사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출신 전몰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애항심을 후대에 널리 계승시키며 나아가 유족들을 위해 탑의 건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용인에 이런 현충시설이 있는지 몰랐는데 용인 출신 애국전몰용사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용인시현충탑 #호국전몰용사 #나라를사랑마음

임지유 새봄초4



몽양 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언론인, 체육인이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1886년 5월 25일 ~ 1947년 7월 19일)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꾸셨던 여운형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곳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양기념관 #몽양여운형선생 #뜨거웠던살

김소울 새미레초5



권영주 중위 동상은 우리에게 용기, 희생, 그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영웅들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포수와 탄약수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행동으로 옮기셨으며, 네 명의 군인을 구하신 점이 참 대단하고 본받고 싶습니다.

#권영주중위동상 #용기와희생

나라사랑 7호 구독 후기



김*안

우사 김규식 선생님의 만화를 잘 보았습니다! 만화로 쉽게 풀어서 선생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정*진

엄마랑 마로니에 놀러가면 늘 맛있는 것만 사달라고 조르기만 했는데 마로니에 공원에 이런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다니 이번 주말에 아빠랑 엄마랑 손잡고 다시 놀러가기로 했어요.



김*휘

국가보훈의 달에 대해 설명할 때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연평해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현충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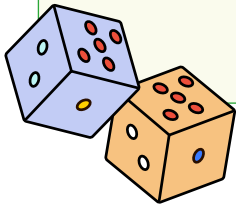
박순홍 하사가 가족을 두고 전쟁터에 간 마음이 어땠을지, 유서를 쓸 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셔서 기뻐합니다.



부록 활용 방법!

나라사랑 주사위 게임!

- ① <어린이 나라사랑>을 읽고 뒤표지 주사위 게임판을 준비해요.
- ② 뒤표지 QR 코드를 통해 나라사랑 AR앱을 다운주세요.
- ③ 나라사랑AR에 주사위 게임판을 비추면 나라사랑 주사위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벤트 신청 방법!



사(史)적인 여행

컬러링을 개성있게 색칠하고 완성한 컬러링을 인스타그램에 #어린이나라사랑 #컬러링이벤트 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나라사랑 구독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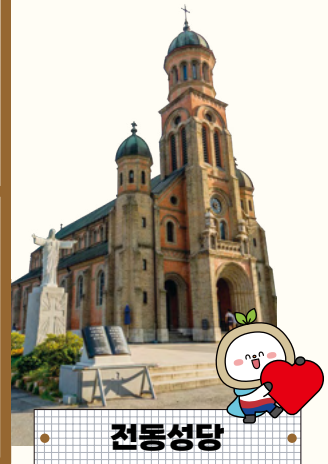
<어린이 나라사랑>을 읽고 구독 후기를 어린이 나라사랑 웹진 '구독 후기'를 클릭해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분께 기프티콘을 드려요. 가장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3분은 다음 호 구독 후기 코너에 소개되는 기쁨을 드려요!

나라사랑 인증하기!

우리나라 보훈 시설에 방문한 후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어린이나라사랑 #인증하기이벤트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 추첨을 통해 5분께 기프티콘과 다음 호 나라사랑 인증하기! 코너에 소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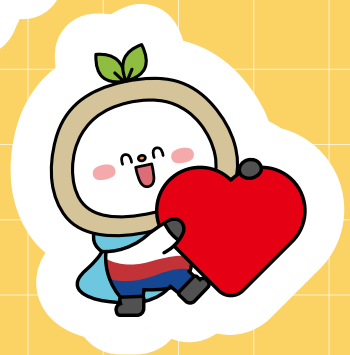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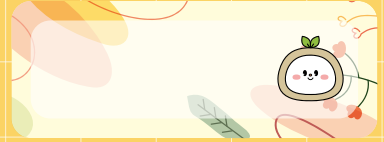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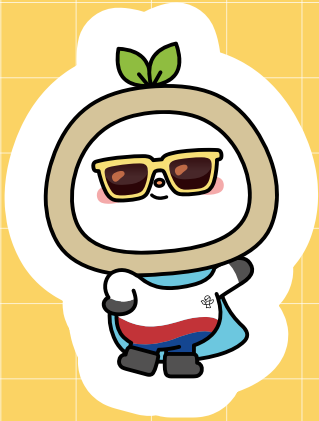
나라사랑 미로 찾기

‘보보’와 함께 호국보훈 정신이 담긴 장소를 따라가봐요!
<어린이 나라사랑>을 열심히 읽어봤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나라사랑숲 속 유쾌한 요정 보보와 함께

나라사랑씨앗 품기



나라사랑 국가보훈 퀴즈



호국의 영웅

- 01**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산하의 한국군 혼성부대가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 전투를 벌였습니다.
- 02** 평생을 해군을 위해 헌신한 홍은혜 여사는 해군 최초의 군가 '○○○ ○○'등 다수의 해군 군가를 작곡했습니다.



- 05** 주시경 선생님은 우리말을 '한글'이라고 명칭을 바꾸었고 우리말 사전인 ○○○를 편찬했습니다.



국가보훈부

호국의 역사

- 03**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하여 일어난 전쟁입니다.
- 04** ○○○○○○은 6·25 전쟁 중 해병대 김성은 부대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통영반도에 최초로 적전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통영을 탈환한 작전입니다.



나라사랑 배움터



- 06** 배선두 애국지사는 1945년 4월 임시정부 도착하여 광복군 총사령부 ○○○에 배치되었습니다.



TV나라사랑

*적전상륙작전: 적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앞에 상륙하는 작전



웹진 바로가기

<어린이 나라사랑>을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기

퀴즈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2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구독 후기 보내기

웹진에 방문해서 <어린이 나라사랑>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5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구독 신청하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께 <어린이 나라사랑> 다음 호를 보내드립니다. (한정 수량 초과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START

전상군 경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한 채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반란을 일으킨 집단을 진압하기 위해 잔혹을 벌이다 상아를 많은 사람입니다.

돌발
OX

상아는 전복나 군사상 공무 중에 입은 부상을 말한다?

뒤로 두 칸



이우근 학도병

학도병의 편지

이우근 학도병의 편지에는 평범했던 영동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돌발
OX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한 날은 1950년 6월 26일이다?

한번 더 던지기



전등성당

19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성지였어요. 전등성당에서 시민강좌를 열어 민주 의식을 키우기도 했어요.

터벽통보법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은 회랑의 군을 놓지 않고 벽을 두드려 소통했어요!

어린이 나라사랑 8호 감상을 적어보아요!

FINISH

증강현실(AR) 주사위 게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나라사랑 AR 앱을 설치한 후 화면에 주사위 게임판을 띄워보세요. 주사위 게임을 증강현실(AR)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QR



iOS용 QR

전주신흥고

1980년 5월 27일 광주의 소식을 들은 전주 신흥고 학생들은 운송편을 통해 민주수호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했어요.



돌발 퀴즈!

돼지 뼈를 요리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음식으로 피난민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왔던 음식은?



암복강 항진균

주요 원인 미생물군
사마귀 바이러스인 HPV가 원인
주요 원인 미생물군
악성종양 유발인자
(해당)

암은 신체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세포의 무제한적인 증식과 침윤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암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는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암복강 항진균' 알아보기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출돌! 기자단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그녀의 일을 속속들이 알아보았어요.

한번 쉬기!



피란 논의 독립운동가 포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박사는 사진과 기록으로 독립운동을 함께하며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한 칸